

‘월 60만원 관리도우미’ LH 실버사원 모집 첫 날

전직 교장·사장까지 몰려 구직전쟁

201명 모집 2시간 만에 정원초과 각종 자격증 등 응시자 스펙 화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국가자격증을 따 취업하려 했지만 나이 제한으로 지원 자체가 되지 않아 허탈해 했는데 실버세대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니 기쁜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16일 오전 9시50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1층 실버사원 모집 현장. 30여명의 노인들이 응시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장을 지낸 최모(64) 씨는 “연금

으로 살아가지만 보험·임대료·월세 등 추가 비용이 많아 항상 쪼들린다”며 “가계에 보탬이 될 것 같아 지원했다”고 말했다.

LH 광주·전남본부는 이번에 실버사원 201명을 뽑는다.

만 60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은퇴 고령자를 채용해 임대주택단지의 입주자 실태조사, 시설물 안전점검,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세대 돌봄 등 LH 임대아파트의 관리도우미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월 60만원의 박봉이지만 일자리 구

하기가 힘든 노인들에게는 인가다.

접수 첫날 마감 결과, 총 201명 모집에 671명이 몰려 3.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7일과 20일 이틀간 더 접수를 받으면 10대 1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 동·서·남구지역은 총 21명 모집에 205명이 접수해 첫 날 9.76대 1을 기록했다. 광산구는 41명 모집에 96명(2.34대 1)이, 북구는 65명 모집에 206명(3.17대 1)이 몰렸다. 전남 지역은 74명 모집에 164명이 접수해 2.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자들의 스펙 또한 화려하다. 절반 가량은 공무원을 지냈다. 특히 교장·교감으로 정년을 한 교육공무원이 많았다. 중소기업 대표, 금융회사 임원, 언론사 간부, 육군 소령 출신도 눈에 띄었다.

보유한 자격증도 다양했다. 주택관리사를 비롯해 노인교육지도사, 요양보호사, 한식조리사, 문서실무사, 자살예방상담사, 건축기사 등이다.

조리사 경력에 있는 복구 문모(65·여) 씨는 “여생을 낭비를 하지 않고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언론사 간부를 지낸 나모(65)씨는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지만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며 일자리를 원했다.

교육공무원을 지낸 유모(71) 씨는 “매일 새벽 5시 이전에 아파트 주변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실버사원 접수 첫날인 16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LH 광주·전남본부 1층 실버사원 채용 현장.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LH직원의 안내로 상담과 접수를 하고 있다. 이날 총 201명 모집에 671명이 몰려 3.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접수는 17일과 20일 이틀간 더 받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현역의원 다면평가 개시

광주·전남 최소 2~3명 컷오프 탈락 전망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6일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동료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다면평가 설문지를 배포하고 1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3면〉

다면평가 그룹은 상임위와 선수별(초선, 재선, 삼선 등)로 구성됐으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4개(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급으로 나눠 상대 평가를 하도록 했다.

상임위는 직무태도, 직무역량, 상임위 성과, 선수별로는 직무태도, 직무역량, 당 기여도 등이 평가 항목으로 제시됐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면 평가가 현실화되자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동료 의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번 다면평가(3점)가 전체 컷오프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행여 최하점을 맞을 경우, 공천위 평가 과정에서 이미지가 실추,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다음 주말께 마무리될 예정으로 알려진 컷오프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100명 내외 2~3명 정도가 탈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고흥·보성, 담양·곡성·구례, 장흥·강진·영암, 순천시 등 현역 국회의원 100여명이 선출됐거나 없는 지역구를 제외한 16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모두 컷오프를 통과하기는 현실적

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2~3명 정도가 컷오프 돼야 개혁 공천을 내세운 공심위의 위상이 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여성 전라공천, 아권연대 등이 현상화된다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에서는 컷오프 탈락 가능성이 높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순위가 거론되면서 예비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공심위 심사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주변에서는 경쟁 후보들에 대한 각종 비방과 음해성 루머가 퍼지는 등 혼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수·목포·장성 거주 65세 이상 7월부터 고혈압·당뇨 진료비·약값 면제

오는 7월부터 여수시와 목포시, 장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민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고혈압·당뇨병의 진료비와 약값을 면제받게 된다.

16일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여수시 등 전남 3개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실시된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진료받은 민간 병·의원을 지정하면 중앙정보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매월 진료비 1500원, 약제비 3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보해저축은행 前대표·대주주 중형 선고

법원이 ‘보해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모자격인 전 은행장과 대주주인 보해양조 전 대표 등에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6일 불법 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부실 규모를 감추기 위해 뇌물을 전달한 혐의(배임 및 뇌물공여)로 기소된 보해저축은행 운문철(60)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박종환(56)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억 7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모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보해양조 임건우(65)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김상봉 전주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법정구속됐다.

오 대표는 관계 법령이나 여신 규정을 어긴 채 부실 대출을 해 은행에 1200여 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임 전 대표, 김 전주와 공모해 보해양조에 370억원 가량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보해저축은행이 사기업 같이 대출해 주고 금품을 받거나 뇌물을 건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학부정시 추가모집
2월24일(금)~27일(월)
입학문의: 한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출발확정 3월28일 [준특급+1급호텔] 로마지항 / 3대박관광 서유럽4국 (영국/프랑스/스위스/이태리) 9일 3,890,000원 + 유류할증료

중국
장가계/원가계/황동굴 (천문산) 4월/5월/6일 469,000원
볼의 곤명/석림/구황동굴 5월/6일 549,000원
천하 절경 게임이강유람 5월/6일 529,000원
구채구/모니구/낙산대불 5월/6일 399,000원
서안/빙마용/진시황릉/화청지 4/5일 449,000원
대만/화련/지우펀/야루/운천 4월 449,000원
백만불야경 홍콩 4월/5일 499,000원

일본
온천/케요리 뷔페 북해도 일주 4월/5일 599,000원
벳부 아소 유후인 3월/4일 349,000원
[오사카] 나라 교토 고베 아리마 3월 379,000원
[동경] 시즈오카 요코하마 하코네 4월 399,000원
[가고시마] 이부키 모래찜질 3월/4일 599,000원
[오카와] 지상열차 파타야 일주 3월/4일 699,000원

미주
하와이 + 미서부 11일 1,890,000원
하와이 일주 5월/6일 98만 원
미국서부 3대도시+3대캐년 8일 139만 원
뉴욕/워싱턴/나이아가라/보스턴 8일 189만 원
캐나다 항공일주 8일 169만 원

동남아
[한상시점] 세부 4월/5일 299,000원
[가라곶] SO COOL 방콕 파타야 5월 399,000원
[노원/조트콤] 나눈리콧방 파타야 5월 699,000원
[한상시점] 세부 4월/5일 299,000원
[특가] 베트남 하이안/베트남수성 5월 499,000원
[푸켓] 푸켓/피피섬+사이민쇼+핀아니+코끼리드래킹 5월/6일 499,000원
[가라곶] [잠남발리] 발리 전동마사지1시간+3대특식 5월/6일 599,000원

유럽
해금성+백조의 동유럽 5국 9일 999,000원
서유럽 (전일확정) 5국 10일 179만 원
[노팅] 서유럽 4국(영/프/스/이) 9월/10월 1,690,000원
[No.1] 서유럽 6국 11월/12월 1,790,000원
"항공이동" 스페인/포르투갈 10일 1,890,000원
이집트/그리스/터키 11월 1,890,000원

호주 뉴질랜드
[신선특가] 시드니/저비스베이 6일 899,000원
[캘 PIC 골드 4월/5일 (선인+소아)] 667,000원
[팔라우] 789,000원
[사이판] 599,000원
[티니안] 699,000원
[특급일정] 국적기직항/9대특식/특급호텔 호주/뉴질랜드 북섬 8일 1,790,000원
[JalU] 항공이동/노팅/유류할증료 포함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3,290,000원

예/약/상/담
북구점 267-8587 상무점 652-2974 수완점 574-1300 동구점 227-8255 남구점 382-5353 침단점 233-2627 총장점 222-9796 하남점 954-9700 광천점 350-6226